

편집 및 발행인 : 조정희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김동환 · 감수 : 이연경 · 전화번호 : 051-797-4913 · E-mail : kdong@kmi.re.kr

목 차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아시아 항만 적체·태평양 항로 결항 지속…
9월 선박·운송 일정 불확실성 확대

▶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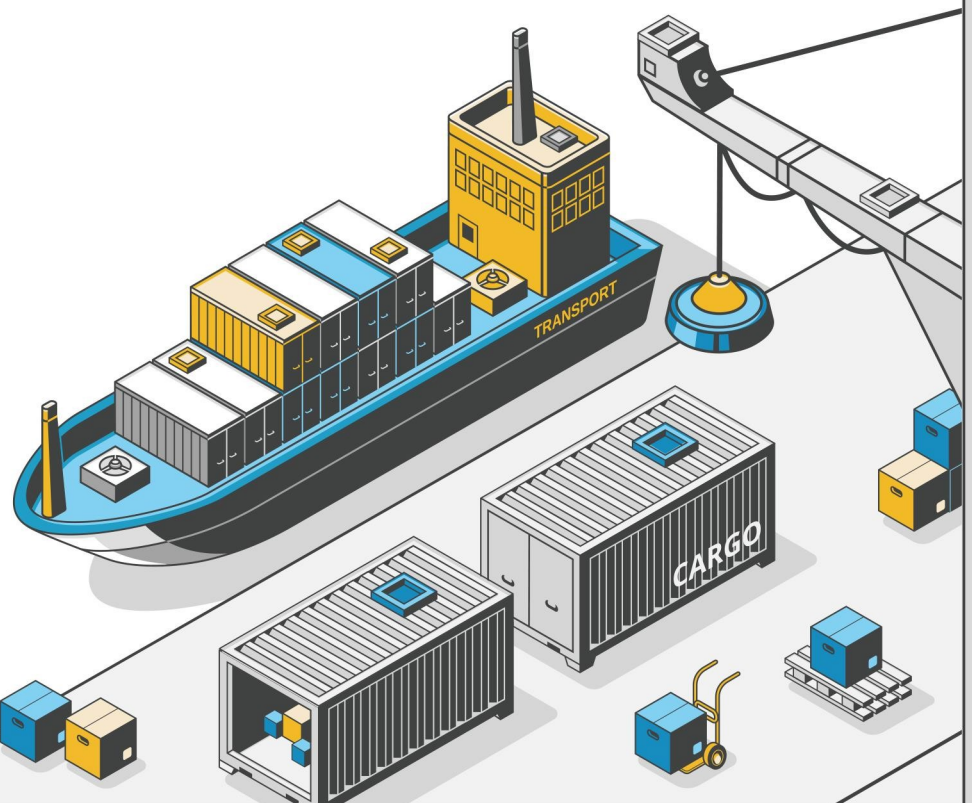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중남미 주요 항만, '컨' 물동량 증가·선박 대형화에
터미널 투자 박차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중국발 화물 유럽 유입 확대…통상·공급망 대응
부담 가중



아시아 항만 적체·태평양 항로 결항 지속... 9월 선복·운송 일정 불확실성 확대

- 금년 9월 들어 태평양 항로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하는 가운데, 선사들의 결항을 통한 공급 조절이 이어지면서 선복 확보 애로 지속
 - Drewry의 세계컨테이너운임지수(WCI)는 '26년 9월 3일 기준 40피트 컨테이너당 4,465달러로 전주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주요 항로별 운임은 상반된 흐름을 보임
 - 특히 상하이-로스앤젤레스 운임은 전주 대비 5% 상승한 7,185달러, 상하이-뉴욕은 3% 상승한 9,587달러를 기록했지만, 상하이-로테르담은 5% 하락한 4,092달러, 상하이-제노바는 10% 하락한 4,368달러를 기록함
 - Drewry는 태평양 항로의 건조한 수요 및 선사의 공급 관리가 지속되면서 단기적으로 운임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선사는 태평양 항로를 중심으로 결항을 통한 선복 공급 조절을 지속하고 있음
 - Drewry에 따르면 37~41주차(9월 7일~10월 11일) 주요 동서항로의 예정 항차 729편 가운데 47편이 결항될 예정으로, 전체 예정 항차의 약 6%에 해당함
 - 전체 결항의 68%가 태평양 항로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시아-북유럽·지중해 항로가 17%, 대서양 항로가 15%를 차지하는 등 태평양 항로를 중심으로 선복 공급 조절이 이어지고 있음
- 주요 아시아 항만의 기상 악화에 따른 적체가 선박 운항 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항만 운영 정상화 이후에도 운송 지연이 이어질 가능성 존재
 - 특히 최근 잇따른 기상 악화로 상하이·닝보 등 주요 항만에서 선박 대기과 화물 적체가 발생하면서 선박 운항 일정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9월 4일 기준 상하이 와이까오차오와 양산의 선박 대기기간은 각각 9일 이상과 7일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터미널을 중심으로 적체가 지속되고 있음
 - 항만 운영이 재개되더라도 대기 선박의 순차적 입항과 선석 배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선박 입출항 일정의 정상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항만 적체와 운항 차질은 최근 글로벌 컨테이너선의 정시성 저하로도 나타나고 있음
 - Sea-Intelligence에 따르면 '26년 7월 글로벌 컨테이너선 정시율은 56.4%로 전월 대비 6.1%p 하락해 '26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지연 도착 선박의 평균 지연 기간도 전월 대비 0.59일 증가한 6.06일로 '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실제로 주요 글로벌 항만의 대기 현황을 살펴보면 상하이/닝보의 항만 대기 선박은 239척, 대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141만 TEU로 비교 대상 항만 가운데 가장 높음

아시아 지역 주요 '컨' 터미널 적체 현황('26년 9월 6일 기준)

(단위: 척, TEU, %)

항만명	항만 대기 선박 수	항만 대기 컨테이너 물동량	항만 내 선박 수	항만 내 컨테이너 물동량	선박 대기 비율
상하이/닝보	239	1,410,785	82	549,409	2.91
싱가포르	27	265,596	63	393,120	0.42
함부르크/브레머하펜	12	121,111	30	238,486	0.40
테마	18	110,962	5	26,806	3.60
콜롬보	22	99,827	14	98,655	1.57
로테르담	14	97,620	36	213,616	0.39
포트클랑	29	86,411	31	122,579	0.93
⋮	⋮	⋮	⋮	⋮	⋮
부산	17	73,285	45	245,836	0.37
⋮	⋮	⋮	⋮	⋮	⋮
뭄바이	16	57,560	0	0	0
샤먼	15	51,208	24	76,710	0.63
⋮	⋮	⋮	⋮	⋮	⋮
서배너	6	45,382	8	72,988	0.73
발보아	6	42,477	4	31,513	1.71

자료: <https://www.linerlytica.com> (검색일: 2026.0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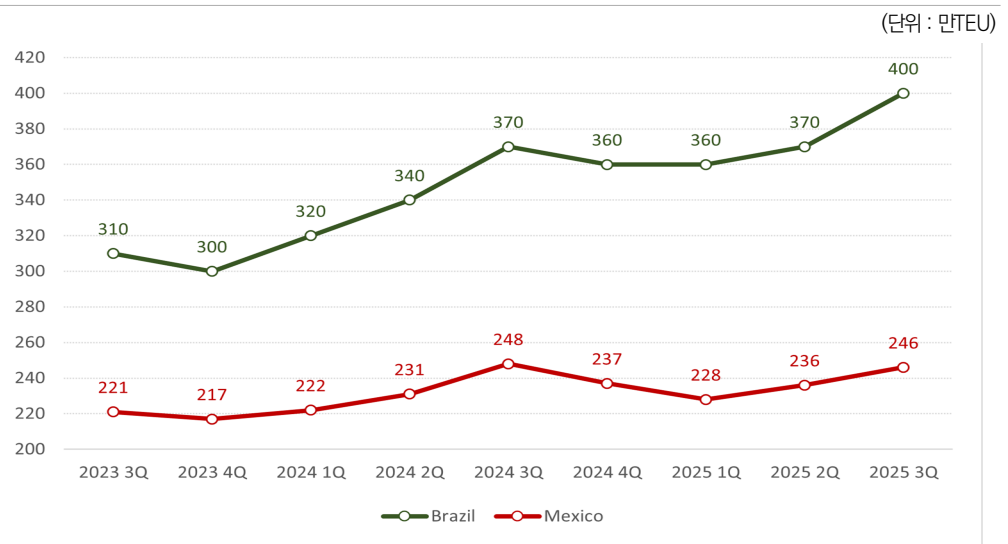
- ▶ 항만 적체와 선사들의 공급 조절이 이어지면서 9월 아시아발 북미행 화물은 운임뿐만 아니라 선박 확보와 운송 기간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
 - 9월 해상운송 시장은 태평양 항로의 운임 상승과 선사들의 결항, 주요 항만의 일정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화주의 운송 계획 수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선박 결항과 항만 적체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예정 선박에 선적되지 못한 화물이 후속 항차로 이월되면서 실제 운송 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10월 초 연휴를 앞두고 선적 수요가 집중될 경우 일부 항로를 중심으로 선박 확보 부담이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물류기업은 아시아발 미주 화물을 중심으로 선박별 출항 일정과 결항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항만의 적체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운송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납기 준수가 중요한 화물의 경우 대체 출항 일정과 운송경로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운송 일정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Drewry World Container Index (Assessed 03 Sep 2026), Drewry Cancelled Sailings Tracker (Weekly analysis: 04 Sep 2026), www.sekologistics.com, www.sea-intelligence.com, www.linerlytica.com (검색일: 2026.09.07.)

중남미 주요 항만, '컨' 물동량 증가·선박 대형화에 터미널 투자 박차

- ▶ 브라질과 멕시코의 '컨' 물동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관문항을 중심으로 초대형선 대응과 처리능력 확충을 위한 터미널 투자 활발
 - 브라질 항만의 분기별 '컨' 처리량은 '23년 3분기 약 310만TEU에서 '25년 3분기 약 400만TEU로 약 29% 늘어났으며, '24년 이후 분기당 300만TEU 중후반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멕시코 항만의 분기별 '컨' 처리량도 '23년 3분기 약 221만TEU에서 '25년 3분기 약 246만TEU로 약 11% 증가했으며, '24년 이후 대체로 분기당 220만~250만TEU 수준의 높은 물동량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국에서는 증가하는 '컨' 물동량과 선박 대형화에 대응해 단순한 터미널 처리능력 확대를 넘어 대형선 접안 능력 확충, 하역 장비 현대화, 자동화 및 친환경 장비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항만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음

브라질·멕시코 항만 '컨' 처리량 추이(2023년 3분기~2025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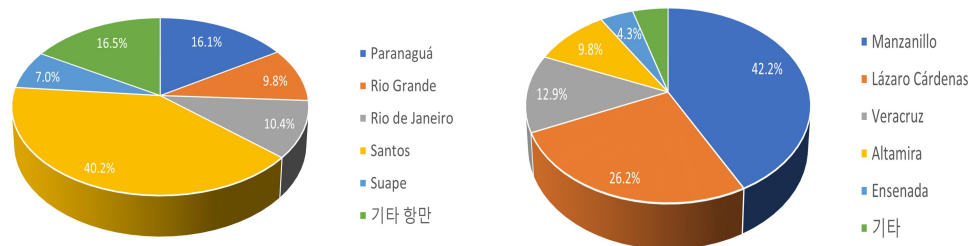
주: 국가 전체 항만의 분기별 컨테이너 처리량 기준

자료: 브라질 ANTAQ; 멕시코 SEMAR·CGPMM 기반 KMI 작성 (검색일: 2026.09.08.)

- ▶ 브라질과 멕시코의 '컨' 물동량은 일부 핵심 관문항에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어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처리능력 확충 및 시설 현대화 필요성 확대
 - '25년 1분기 브라질 주요 공공 항만의 '컨' 처리량 가운데 산토스(Santos)항이 4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파라나과(Paranaguá)항 16.1%,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항 10.4%, 하우그란지(Rio Grande)항 9.8%, 수아페(Suape)항 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멕시코 역시 주요 항만으로의 물동량 집중도가 높은 가운데 만사니요(Manzanillo)항이 전체 '컨' 처리량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최대 관문항이며, 라사로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항을 비롯해 베라크루즈(Veracruz)항, 알타미라(Altamira)항 등 주요 항만이 대부분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음
- 특히 양국 최대 '컨' 관문인 산토스항과 만사니요항의 처리 비중이 각각 40% 수준에 달하는 등 특정 핵심 항만으로 물동량이 집중되고 있어 선석·야드 확충, 대형선 접안 능력 강화 및 하역 장비 현대화 등을 통한 처리능력 제고가 중요해지고 있음

브라질(좌)·멕시코(우) 주요 '컨' 항만별 점유율(TEU 기준)



주: 1) 브라질은 '25년 1분기 공공 항(Portos Organizados)의 '컨'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항만별 점유율임

2) 멕시코는 '25년 1분기 국가 항 시스템의 '컨'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항만별 점유율임

자료: 브라질 Agência Nacional de Transportes Aquaviários(ANTAQ), 「Boletim Estatístico Aquaviário」; 멕시코 Secretaría de Marina(SEMAR), Coordinación General de Puertos y Marina Mercante(CGPMM)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멕시코 최대 '컨' 관문인 만사니요항은 물동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에 대응해 초대형 '컨' 선 수용능력 확대 추진

-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ICTSI의 멕시코 자회사 콘테콘 만사니요(Contecon Manzanillo, CMSA)는 최근 최대 흘수 15.5m의 '컨' 선 입항 승인을 확보하면서 길이 400m, 최대 2만 4천TEU급 초대형 '컨' 선을 처리할 수 있는 운영 여건을 확보함
- 만사니요 항만청(ASIPONA)은 항로 및 선화장 준설·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CMSA도 향후 신규 선석의 운영 흘수를 17m까지 확대해 초대형선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임
- CMSA는 '25년 Phase 3A 확장을 완료해 연간 약 180만TEU의 처리능력을 확보했으며, Phase 3B를 통해 안벽 227m 추가 확장과 안벽크레인(QC) 2기, 타이어식 갠트리크레인(RTGC) 9기 등을 추가해 연간 처리능력을 약 200만TEU까지 확대할 계획임

▶ 브라질도 '컨' 물동량 증가와 주요 항만의 처리수요 확대에 대응해 리우데자네이루·수아페항 터미널 처리능력 확충과 현대화·친환경 투자 확대

- ICTSI가 운영하는 리우 브라질 터미널(Rio Brasil Terminal, RBT)은 신규 안벽크레인 2기를 추가해 총 6기의 안벽크레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길이 400m, 최대 2만 TEU급 초대형 '컨' 선박의 하역이 가능해짐
- RBT는 '29년까지 야드 통합·확장, 운영 구역 재배치 및 자동화·첨단 운영 기술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연간 '컨' 처리능력을 약 75만TEU까지 확대할 계획임
- RBT가 위치한 리우데자네이루항의 '25년 3분기 '컨' 처리량은 약 23만 6천TEU로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하는 등 최근 높은 물동량 증가세를 나타냄
- APM Terminals는 지난 6월 브라질 북동부 수아페항에 약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연간 40만TEU 규모의 신규 터미널 'APM 터미널즈 수아페'를 완공했으며, 이에 수아페항 전체 '컨' 처리능력은 기존 대비 약 55% 확대될 전망이다
- 특히 신규 터미널에는 전동식 안벽크레인(STS)과 원격 운영 방식의 전동식 RTG 등 전기 기반 하역 장비가 도입돼 중남미 최초의 완전 전동화 '컨' 터미널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아페항의 처리능력 확대와 친환경 항만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중남미 주요 항만의 '컨' 터미널 투자 현황



자료: Port Strategy, ICTSI, APM Terminal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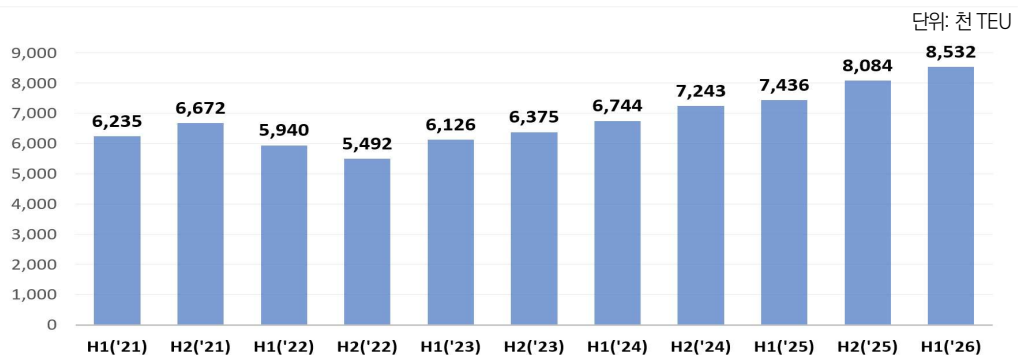
➤ 중남미 항만 투자는 단순 처리능력 확대에서 ‘초대형선 대응·자동화·친환경화’ 중심의 질적 고도화 단계로 전환 본격화

- 최근 중남미 항만의 투자는 만사니요항의 수심·선석 확충, 리우데자네이루항의 대형 하역 장비·자동화 도입, 수아페항의 완전 전동화 신규 터미널 구축 등과 같이 투자 방식은 상이하나, 글로벌 선박 대형화와 교역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공통점을 보임
- 특히 최대 2만~2만 4천TEU급 선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중남미 주요 항만의 기간항로(Mainline) 유치 경쟁도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들의 투자가 대형선 수용력 확보와 처리능력 확충은 물론 자동화·전동화를 통한 생산성 및 친환경성 제고로 확대되면서 중남미 항만·물류 네트워크의 경쟁 구도도 점진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발 화물 유럽 유입 확대... 통상·공급망 대응 부담 가중

-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국 관세장벽 강화 영향으로 중국산 화물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초래
 - 미국은 기존 Section 301 조치를 통해 EV, 배터리, 기계 및 전자기기, 태양광,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 확대와 관세 인상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산 화물의 미국시장 접근성이 낮아짐에 따라 해당 화물의 수출시장이 유럽, ASEAN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 중국발 유럽행 '컨' 물동량 규모는 5,492천 TEU('22년 하반기)에서 8,532천 TEU('26년 상반기)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나타남
 - 특히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화물이 유럽으로 유입됨에 따라 역내 주요 제조산업 영역인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철강, 화학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대중국 화물의 역내 유입 확대를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의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해 무역방어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반기별 중국발 유럽행 '컨' 물동량 변화 추이('21~'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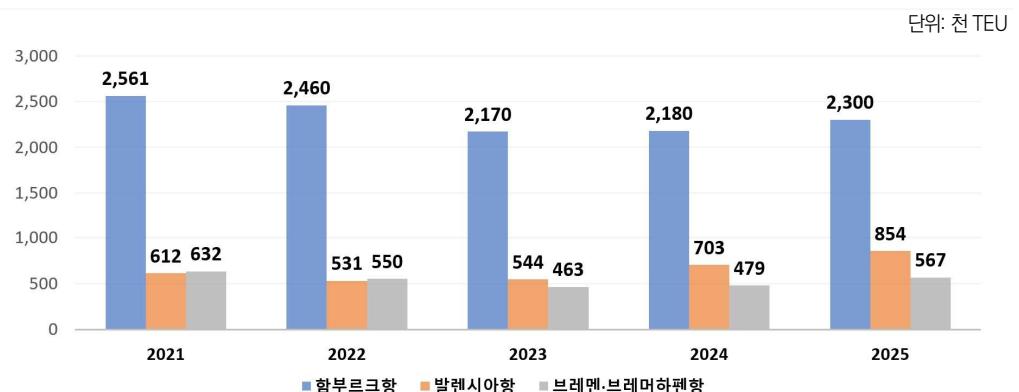


자료: Container Trades Statistics 자료 기반 저자 재구성 (검색일: 2026.09.08.)

- EU 집행위원회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균형화하고자 제재수단 시행과 협의를 병행
 - EU는 대중국 무역 불균형과 산업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핵심원자재와 희토류 등 일부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
 - '26년 2분기 EU의 중국산 화물 수입액은 1,536억 유로로 전체 역외수입의 21.9%를 차지했으며, 대중국 무역적자는 1,030억 유로를 기록해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의 대응조치를 확대하며 중국 상무부와 교역 흐름을 공동 모니터링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협이가 결렬될 시, 제3국의 경제적 강압이 확인될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대응수단을 포함한 추가 통상적 대응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

- 중국의 '컨' 물동량은 유럽의 항만별 교역구조와 화물 기종점에 따라 증감 추세가 상이
 - 함부르크항의 중국발 '컨' 물동량은 2,561천 TEU('21년)에서 2,170천 TEU('23년)까지 감소한 이후 2,300천 TEU('25년)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임
 - 반면, 발렌시아항은 531천 TEU('22년)에서 854천 TEU('25년)로 중국의 '컨' 물동량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브레멘·브레머하펜항의 대중국 '컨' 물동량은 463천 TEU('23년)에서 479천 TEU('24년), 567천 TEU('25년)로 증가했으나, 발렌시아항 대비 낮은 증가세를 나타냄
 - 즉 대중국 '컨' 물동량 증감 추세는 화물의 기종점 및 항만별 배후시장 접근성에 따라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임

유럽 내 주요 항만별 중국발 '컨' 물동량 변화 추이('21~'25년)



자료: 각 항만공사 자료 기반 저자 재구성 (검색일: 2026.09.08.)

- 유럽의 대중국 '컨' 물동량 변동성 확대는 유럽 권역의 공급망 안정성을 저하
 - 유럽의 대중국 교역 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와 공컨테이너 재배치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
 - 중국계 물류기업이 유럽의 물류 인프라에 대폭 투자할 경우 중국의 유럽 내 물류거점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음
 - 이는 장기적으로 유럽 물류시장 내 경쟁구도와 공급망 운영체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참고자료: <https://www.euronews.com>, <https://ec.europa.eu>, <https://commission.europa.eu>
(검색일: 2026.09.08.)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KAKAO
채널 등록하기

- 1 카카오톡 검색창에
'국제물류정보포탈'을
검색합니다.



- 2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